



[ 시민사회 집담회 ]

#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일시 | 2017. 4. 28.(금) 저녁 7시~9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 홀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 코코, 따비에

문의 | 이동화 010-9947-9920 (아디)

나현필 02-736-5808(국제민주연대)

주 제	발표자
로힝야인권 실태보고: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김기남 변호사(아디)
로힝야인권 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장준영 교수(한국외대)
로힝야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참가자 전원

[시민사회 집담회]

#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일시 || 2017. 4. 28. (금) 저녁 7시~9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 홀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 따비에

[발제1]

## 미얀마 로힝야족 민간인에 대한 감춰진 학살, 그리고 우리

김기남 (변호사, 아디 상근활동가)

*“떠나라, 너는 이 나라 국민 아니다.”*

2016년 10월, 집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누르 베검(Nur Begum, 25)씨를 구타하며 하던 말이다. 이 날 군인들은 그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총살하였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늙어서 괜찮을 거라던 아버지는 힘없이 끌려 나가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였다. 남동생(15)도 끌려갔다. 혐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구금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동생은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살해되었다고 포기하라고 한다. 아버지도 남동생도 미얀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야 했다. 그녀도 피난처를 찾아 방글라데시로 월경해야 했다. 군인들에게 그녀와 그 가족들은 그들이 보호해야 하는 자국민이 아니었다.



<사진 출처 - BBC>

2016년 10월 이후부터 4개월 동안 위와 같은 인권침해로 수많은 로힝야족(

Rohingya) 민간인이 고통 받고 있다. 로힝야 75,000여명이 군부의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었고 1,000여명이 살해당했으며, 1,500여 채의 가옥이 불태워졌다고 추정된다. 미얀마 정부가 해당지역으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서 얼마의 국내난민이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도 제한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 또는 인종청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웃나라의 심각한 인권사안에 대해 무관심하다. 간헐적으로 소개되는 언론기사 외에는 이에 대응하는 인권단체도 드물다. 이양희 교수가 유엔의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이 글은 지난 2월 아디(ADI)가 진행한 피해생존자 48명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사건의 배경, 경과,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 미얀마 정부의 대응,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사회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D%9E%9D%EC%95%BC%EC%A1%B1#/media/File:Displaced\\_Rohingya\\_people\\_in\\_Rakhine\\_State\\_\(8280610831\).jpg](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D%9E%9D%EC%95%BC%EC%A1%B1#/media/File:Displaced_Rohingya_people_in_Rakhine_State_(8280610831).jpg)>

## 로힝야 논쟁-미얀마 소수민족인가

로힝야족은 지구상에 2백만명이 존재한다. 미얀마에 130만명, 사우디아라비아에 40만, 방글라데시에 30~50만, 파키스탄에 20만 가량이 주로 거주한다. 미얀마 로힝야족은 주로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인 라카인주 북부에 거주하고 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가 영국식민지가 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지금의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와 방글라데시 접경지역 등의 벵갈만 인근에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살아온 민족이다. 다만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국경이 인위적으로 그어지면서 일부는 방글라데시로, 일부는 미얀마로 편입되었다. 벵갈어를 쓰고 무슬림을 믿는 미얀마 내의 로힝야족은 스스로 미얀마의 소수민족이라고 여긴다. 혹자는 라카인주를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라카인족(Rakhine)과 로힝야족이 공존했던 '수렴의 공간'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부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원주민 출신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군부는 이들을 1948년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거대 토목공사의 인력으로 투입된 이주노동자들이었는데 독립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카인주에 터를 잡은 불법이주자라고 간주한다. 미얀마 시민권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이다. 실제로 1982년 네윈 정부는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현재 무국적자 상태이다. 실제 아디(ADI)가 인터뷰한 피해자 모두는 미얀마 시민권이 없다고 증언했다. 로힝야족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면적으로 이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권유린의 이유 중 하나이다.

##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박해는 그 역사가 길다. 로힝야족은 버마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다른 소수민족과 유사하게 자신들의 자치독립에 유리한 행보를 걸어왔다.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이들의 무장투쟁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불교도인 버마족 중심의 군부정권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로힝야족 전체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또 라카인주의 또 다른 소수민족이자 불교도인 라카인족과의 분쟁을 방관 또는 조장하거나 이를 빌미로 로힝야족을 차별하였다.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 모습 - 아디>

1978년,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 반군토벌을 명분으로 내건 킹드래곤 작전으로 로힝야족 20만 명을 방글라데시로 몰아냈고, 1991년에는 25만 명을 몰아냈다. 2012년에는 라카인 소수민족과의 충돌로 최소 로힝야족 200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격리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부 로힝야 청년이 불교도 여성을 강간한 사건으로 촉발되어 라카인 불교도들이 로힝야족을 보복 공격하면서 격화되었다. 미얀마 전역에 반무슬림 정서의 확산은 물론, 불교도 극우주의 세력 주도의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

준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로힝야족에 대한 억압은 사회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로힝야족은 국적을 받을 수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다. 인근 지역 방문도 허가를 받거나, 통행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가능하다. 결혼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을 구하는데 제약이 있고, 공직에는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2016년 10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토벌작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천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인근 해역을 떠돌았다. 군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불교도 버마족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1월 말, NLD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은 무슬림 우코니(U Ko Ni)변호사의 암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암살을 사주한 범인은 이것이 “버마족과 불교에 유익한(good for race and religion)” 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로힝야족 무슬림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 되었다.

## 사건의 발단

2016년 10월 9일 새벽, 200~400여 명의 로힝야족 남성들이 검, 새총, 30여개의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방글라데시 접경지에 위치한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Maungdaw) 지역의 경찰초소 세 곳을 습격했다. 한 곳은 국경경찰대(Border Guard Police, BGP)의 본부였다. 이 습격으로 경찰 9명이 사망하고 경찰 6명과 경찰관의 부인, 민간인 1명 등이 부상을 입었다. 습격에 가담한 무장세력 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포되었다. 또 무기고의 51개의 다양한 총기와 탄약 1만여 발이 무장세력의 수중에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12~13일에 무장세력은 작전 중인 군차량을 습격하고 교전이 발생하여 군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얀마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 10월 9일 최초의 교전이 발생한 이후부터 2017년 2월 9일 토벌작전의 종료 전까지 4개월 동안 총 20건의 교전 또는 충돌이 있었다.

## 무장세력의 정체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습격을 주도한 세력으로 Harakah al-Yaqin(Faith Movement)를 지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본부가 있고 일부가 파키스탄 등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방글라데시를 통해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우 지역에 잠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알려졌다. 로힝야 거주민들과 동일한 생활

을 하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고 알려졌다. Harakah al-Yaqin의 태동과 로힝야 지역주민의 지지는 2012-3년의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의 확산이 원인이었다. 매일 조금씩 말라 죽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할 정도였다.

Harakah al-Yaqin는 국제적 행위자의 개입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미얀마 내에서 자생한 무장세력의 성격과 다소 다르다. 그렇다고 이들이 지하드를 지향하거나 초국적 테러집단과의 직접적 또는 긴밀한 연계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로힝야의 박해를 종식하는 것을 가시적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지하디스트이며 중동의 테러집단과 연계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 미얀마 정부의 대응

미얀마 군대(Tatmadaw)와 국경경찰대(BGP)는 본격적인 토벌작전(area clearance operation)에 나섰다. 관련자 색출과 무기회수, 조력자 체포 등을 위해 마웅도우 지역을 완전 봉쇄했다. 라카인 북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로힝야족 무슬림 거주지역은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다.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과 독립적 옹저버와 언론의 접근도 통제되었다. 통행금지가 확대되었다. 23:00~04:00 동안 통행이 금지되었던 것이 19:00~06:00로 확대 시행되었다. 또 400여 곳의 공립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었다.

군부는 네 가지 차단작전, 즉 무장세력의 식량(food), 자금(fund), 정보(intelligence), 징집(recruits)을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다. 여기에는 거주민의 강제이주, 작전지역 내 마을의 파괴, 식량의 회수 및 파괴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군부가 오랫동안 소수민족 무장세력을 토벌하는데 활용한 전술이다.

아디(ADI)가 인터뷰한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작전은 자정, 새벽, 오전, 점심, 저녁 등 시간에 무관하게 2-3일에 한번 씩 또는 많게는 하루에 4번까지도 진행되었다. 나중에 마웅도우에서 부티다웅의 푸올렛(Puyolet)마을, 올라페이(Ulapey)마을, 타웅바자르(Taung Bazar)마을까지도 확대되었다.

로힝야 거주 민간인들은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치면 산속으로 도주했다가 군인들이 물러가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존하였다. 다른 마을로 피신하기도



했으나 군인들의 만행에 자유로운 곳은 없었다.

토벌작전이 시작된 후 군대와 국경경찰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을 수색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의자 현장 사살, 가옥의 방화, 재산 탈취, 식량의 압수 또는 파괴, 여성 강간 등의 보도가 있었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다. 방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책임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군대에 돌리고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또 집단 강간 의혹에 대해 로힝야 여성은 “더러워” 군인들이 강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2월까지 진행된 4개월간의 토벌작전을 통해 군대와 국경경찰대는 500여명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토벌작전으로 인한 사망자로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유엔관계자는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군대의 토벌작전의 잔인함과 최근 로힝야에 대한 박해의 양태를 고려하면 희생자는 사실상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BBC>

## 심각한 인권침해

군대의 토벌작전은 무장세력의 색출에 한정하지 않고 로힝야 민간인들 모두를 잠재적 가담자 또는 지지세력으로 간주하고 집단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을 거주지에서 내쫓고 국경 밖 방글라데시로 몰아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총기, 검, 방화, 강간, 구타로 인한 살해가 발생하였고, 집단 강간과 아동 살해, 그리고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방화와 재산 약탈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디(ADI)의 인터뷰에 따르면, 첫째, 군인들은 무작위로 총기를 난사하거나 근거리 조준사격을 통해 로힝야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심지어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공중에서 자동화기를 발포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마웅도우 지역 애캇 차웅가손(Yae Khat Chaung Gwa Son)마을 출신의 솜술 아람(Shomsul Alam, 4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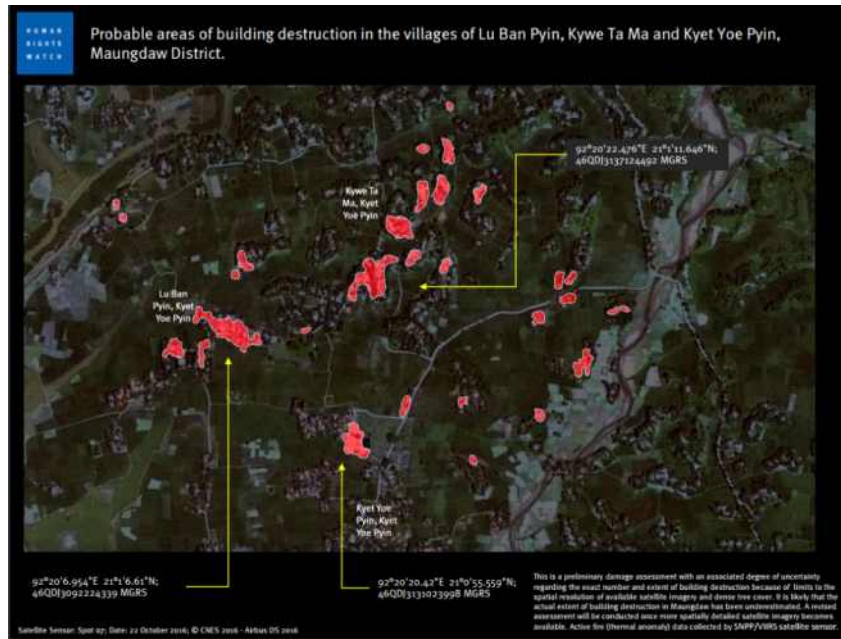
“11월 하순 어느 날 오후 2시 경에, 200~300명의 군인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마을에 도달하자마자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발견하자마자 발포하고 사살했어요. 또 녹색 헬리콥터 2대가 상공에서 자동화기를 쏘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 저도 헬리콥터에서 쏜 총알에 어깨와 등에 맞았어요. 방글라데시에 넘어 온 후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지금도 그 부위에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둘째, 유아를 포함한 아동도 희생되었다. 유아를 우물에 던지거나 땅에 내리쳐 죽이기도 했고, 흉기(검)로 죽이기도 하였다. 2살 난 아들이 살해당한 예윈경(Ye Dwin Kyung) 마을 출신의 라미아오 베검(Ramioa Begum, 22)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2월초 어느날 오전 150여명 가량의 군인과 경찰이 무장을 하고 마을로 들이닥쳤어요.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약 2시간동안 자동화기를 무작위로 난사했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 우리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들은 남편을 체포하고 심각하게 구타했어요. 30분정도 이어졌죠. 남편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온몸이 피로 범벅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편을 어디론가 데려갔죠. 그 뒤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 어느 군인이 두 손으로 2살난 아들을 거꾸로 들어 땅에 내려찍어 죽였어요.”

셋째,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하거나 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산채로 집안에 묶어두고 방화하여 죽이기도 했다. 푸앙푸차웅(Puang Pyu Chaung) 마을 출신의 라미다 카툰(Romida Khatun, 45)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11월 14일 경, 군인 50여명이 무장하고 마을에 들어왔어요. 제 남편, 아들, 시아버지, 시형제들 모두 산 채로 집이 불태워질 때 태워져 사망했어요. ...” 라고 증언하였고, Buthidaung 지역의 Puyolet 마을 출신 Satera Begum(35, 여성)은 “...아버지는 95세로 너무 나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데 군인들은 기름을 적신 헝겊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웠어요. 아버지는 산채로 태워졌어요. ...”



<방화된 마을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자료 - HRW>

넷째, 청장년 남성은 닥치는 대로 잡아 구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체포해 어디론가 끌고 갔다. 이들은 대부분 행방불명되었고, 귀가한 사람들 중 일부는 구타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내외상으로 고통을 받았다. 부티다웅지역의 올라페(Olafe) 마을 출신의 하미드 호산(Hamid Hosan, 47)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지난 11월 12일, 군인들이 집에 와서 돈을 요구했고, 100,000짜트를 빼앗아 갔어요. ... 12월 25일쯤 군인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닥쳐 돈을 요구했어요. ... 당시 마을 사람 50여명이 마을 공터에 잡혀있었는데 그 때 집단적으로 구타당했어요. 그리고 Lawadak으로 이송되었지요. 배로 20분 거리지만 걸어서 2시간 거리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숲 속 공터에 모아놓고 구타를 심하게 당했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지요. 두 아들도 같이 체포되어 있었는데 작은 아들과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약 15명 정도가 다음날 새벽에 근처의 마웅도우 산속으로 도주하는데 성공해서 살아남았지요. ... 큰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또 Ye Dwin Kyung마을의 Nur Begum(25, 여성)은 “12월 중순경...남동생 Syedul Amin(15)는 집 앞에서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로 체포되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생사도 모르고요.”

다섯째, 여성은 집단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군인들은 일부 여성들을 가두어두고 집단 강간하여 살해하거나 심각한 외상을 입혔다. 강간은 거의 모든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푸양표차웅(Puang Pyo Chaung) 마을 출신의 모리암 베검(Moriam Begum, 25)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2월 초 어느 날 자정 경, 군인들 30여명이 집에 쳐들어와 여성을 찾았어요. 10~15명 정도의 군인들이 여동생과 저를 한 방에 잡아두었는데, 이 중 몇 명이 여동생의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게 못하고 하고 돌아가며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저도 강간당했어요. 두 번이요. ... 그 날 밤 이후 마을의 여성들이 공터에 모여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15일여 동안 모여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인들이 다시 오더니 여성들을 집단으로 강간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8~10여명의 여성이 강간당했어요. 어떤 군인들은 4명을 작은 오두막에 끌고 가더니 2일 동안 강간했어요. 나중에 여성들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또 여성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강제적인 몸수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나체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성기를 촬영하는 등의 만행도 일삼았다. 마웅도우 지역의 두당(Dudang) 마을 출신의 쉐둘 이슬람(Syedul Islam, 45)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2월초, 군인들은 남겨진 모든 여성들을 학교운동장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모아 놓고, 이들에게 마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옷을 벗긴 후 이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도 거기에 있었지요. 또 이들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고, 그래서 당시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는데 복부를 가격당해 사산했어요.”

여섯째, 로힝야족 무슬림들이 사는 주거지는 불태워 없어지거나 파괴되었고, 이들이 소유한 가축, 식량, 돈, 금, 장신구 등의 재산은 불법적으로 약탈되었다. 요욱 타웅(Myouk Taung) 마을 출신의 알리 아하메드(Ali Ahamed, 45)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1월 중순경 어느 날 아침 7시경, 무장한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두 시간이 지난 9시 경에는 1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왔고 자동화기로 무작위로 총을 쏘어요....군인들이 20,000 짜트와 금 등을 탈취하고 휘발유로 집을 불태웠어요. 그 길로 마을을 도망쳐 나왔어요. ...”



<피해 생존자의 총상 - 아디>

타민차웅(Thamin Chaung) 마을의 모우사나 베검(Mousana Begum, 36)은 “10월 말 또는 11월초 경, 군인들이 집의 모든 벽을 부수었어요. 무장세력이 벽에 몸을 방어막 삼으며 교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고, 부티다웅 지역의 푸올렛(Puyolet)마을 출신 사테라 베검(Satera Begum, 35)은 “12월말, 군인들은 소 16마리, 염소 12마리, 1년간 수확한 쌀 20가마, 쌀가마니에 숨겨두었던 4,500,000짜트, 옷 등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라고 증언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하였다. 미얀마 정부 주도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사활동이 진행되었으나 그 구성과 활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였고, 인권전문성도 결여되어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미얀마의 사실상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2017년 4월 7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종청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89628.html>). 또 미얀마 정부는 유엔이 결의한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 파견도 거부하였다.

### “가능하다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아디(ADI)가 인터뷰한 피해생존자들은 극심한 구타를 당해 2-3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발을 절거나 제대로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난민

도 있다. 방글라데시로 넘어 온 후에야 주변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이들은 등록된 또는 정식으로 인정된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NGO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우선은 1990년에 넘어와 등록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선배난민들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등록된 난민들의 사정도 녹록치는 않다. 그래서 기껏해야 10평도 안 되는 집에 10여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번에 새로 넘어온 이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 건강상태도 허락하지 않고, 법적으로 일할 권리도 없다. 일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간다. 하루에 1-3달러를 벌어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근마을에 다니며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영양상태도 염려된다.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항의 기자회견 2017. 2. 9.>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눈은 유독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은 눈 아래로 크게 늘어져 있는 다크써클은 난민으로서의 삶의 고단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생동안 가꾸어 온 모든 것을 남겨두고 국경을 넘어야 했고 이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참혹한 장면,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 그리고 삶에 대한 회한뿐일지도 모른다. 군인들은 매질을 해대며, “너의 알라는 지금 뭐하냐. 너를 구하지 않고.” 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아마 이들에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기도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가능하다면 우리를 기억해 달라”며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발제2]

## 로힝자족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장준영(한국외대)

울지 마라. 이 곳은 무슬림의 나라가 아니라 불교도 나라이다. 그러니 떠나라.

-미얀마 군인이 로힝자족에게.

Christina Fink. *Living Silence in Burma*(2009, 2nd ed., p.241)

### I. 시작하며

미얀마는 135개 종족으로 구성된 복합사회이다.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도 다수인 버마족이 사용하는 미얀마어는 티베트-버마어족의 하위언어이고, 몽족(Mon)의 언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언어와 유사하다. 샨족은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으로 태국과 더 가깝다. 국민의 90%가량이 불교도이지만 헌법 제 34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유독 로힝자족(Rohingya)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독립 이래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를 위해 종족적 이질성을 몽골계로 통합하고, 로힝자족은 벵골인(Bengali) 또는 치타공인(chittagonian)으로 정의하여 국민 범주의 배타성을 유지한다. 이 글은 미얀마 내에서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로힝자족에 대한 탄압의 역사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로힝자족의 도래와 충돌하는 역사

미얀마에 최초로 내도한 무슬림은 중동 상인으로 8-9세기 경 현재의 여카잉주 해안에 나타났다고 하나 정확한 자료는 없다. 로힝자족도 이 시기에 여카잉주로 도래했다고 하나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1666년 여카잉왕국이 무갈제국에게 합병되기 전까지 주민 대부분은 상좌불교를 신봉했고, 언어도 미얀마어의 방언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했다(Christie 1996, 163).

16세기 말 버고(Bago) 난다버잉(Nandabayin)왕의 공주에 의한 침략을 받기 전까지

여카잉의 주요 도시는 현재 방글라데시 영토인 치타공(Chittagong)과 현재 여카잉 주의 주도인 싯뜨웨(Sittwe, Akyab)였다. 전자는 갠지스강 델타-다카-동부벵골지역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심지로서 포르투갈 해적들과 연대하여 해상 약탈을 일삼아 오다가 인도 무갈제국 왕위계승에서 패퇴한 샤슈자(Shah Shuja)왕자가 지지 세력과 함께 이주해 오면서 무갈제국의 영토로 복속되었다. 후자는 현재 방콕과 같이 운하와 석호로 구성된 항구 도시로서 재료는 약간 달랐으나 왕궁의 건축 기법이 미얀마 전통왕조와 유사하였고, 무갈제국의 침입과 이슬람 전파에도 저항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아 무슬림 세력보다 미얀마 왕조와 유대성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Hall 1960, 58).

위 기준으로 볼 때 치타공을 중심으로 마유강(Mayu) 상류인 부디다웅, 마웅도, 로디다웅에는 벵골무슬림들에 의해 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 이 중 이슬람화된 종족을 로힝자족이라고 일컫는데 로힝자족이 주장하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여카잉왕국 내 불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양상이었다(<http://www.rsdm.org/rohingya.htm>).

1203년 벵골지역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되었을 때 여카잉 주민들도 무슬림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동인도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슬람은 788년 여카잉지역에 유입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종교가 되었으며 1430-1638년까지 무슬림 술탄제제 하에 2백여 명이 무슬림이 되었다. 14-15세기까지는 독립적인 왕국도 유지하였다. 1665-1710년까지 무슬림들은 최고위원(Prime Minister), 전쟁위원(War Minister), 사법재판관(Judicial Minister)등 버마 조정의 고위관리직을 수행하였으며 페르시아어로 이슬람에 대한 신용을 뜻하는 ‘칼리마’(Kalima)라는 문자를 새긴 화폐와 메달을 통용시켰으며 페르시아어는 여카잉의 궁중어가 되었다.

역사적 배경에 따르면 그들이 스스로를 로힝자족이라고 부르는데 객관성이 확보된다. 예를 들어 좌초된 배에서 살아남은 아랍인(로힝자족)이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토대로 왕실의 용병으로 고용되었는데, 여카잉지역 원주민이 이들을 유와 하웅 가자(ywahaung ga ja: 옛 마을의 호랑이)로 불렀다. 또한 무갈제국의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모하메드 라힌(Mohammed Rahin)이 1660년 여카잉지역으로 망명했고, 이들의 후손을 일컫는 라힌자라는 발음이 현지화되어 로힝자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가설도 있다. 아프카니스탄 루하(Ruha)에 거주하던 원주민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발견된다.

여카잉왕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묘하웅(Myo Haung: 옛 수도)의 여카잉어 발음인 므로하웅(Mrohaung)의 잘못된 발음이 로힝자로 고착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와 반대로 여카잉족의 눈에 이들은 특정한 정착지가 없이 유랑



하는 사람들로 그 형국이 집시라는 의미인 유잉자(Yuingya)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이에 반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자족에 대한 반응은 대척점에 있다.

오늘날 미얀마에는 135개 종족이 거주하나 역사적 사실로 로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미얀마에서 로힝자족은 없었다. 로힝자라는 이름은 1차 영-미 전쟁 기간에 미얀마 인근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주한 무슬림 집단들이 만들어 낸 난민 집단이다. 불법적 이민자이므로 그들은 영주권을 가질 수 없다(Hla Min 2001, 95-99).

2004년 4월 유엔아동인권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낸 군사평의회(SPDC)의 답변에서도 로힝자족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출생과 사망신고, 교육, 보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서 다른 종족처럼 이 사람들(로힝자족)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공식기록에 의하면, 그들(로힝자족)은 벙골인의 한 인종이며 미얀마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1982년 제정된 버마시민법(Burma Citizenship Law)에 의하면 시민은 완전시민(full citizen), 준시민(associate citizen), 귀화시민(naturalized citizen)으로 분류 되는데 로힝자족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르면 1823년(버마력 1185년)부터 미얀마 영토에 거주하는 까친, 꺼야, 꺼잉(까렌), 친, 버마, 몽, 여카잉, 산족 및 기타 소수종족을 미얀마의 완전시민이라고 규정한다(제 3항). 1948년 (버마 시민) 법(1948 Act)<sup>1)</sup>에 의하면 로힝자족은 준시민에 해당되지만 군사평의회(SPDC)는 그 개연성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일부 로힝자족은 독립 이전부터 미얀마 국민으로 귀화했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문건에는 출생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귀화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1948년 시민법을 근거로 비상이민법(1974)<sup>2)</sup>, 나가밍 프로그램(1977, Operation Naga Min)<sup>3)</sup>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인종 차별정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자족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20만 명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했다(<http://www.rsdm.org/rohingya.htm>).

2002년 기준 여카잉주 인구는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그 중 70만-150만 정도

- 1) 본 법령은 온라인 버마도서관([http://www.ibiblio.org/obl/docs/UNION\\_CITIZENSHIP\\_ACT-1948.htm](http://www.ibiblio.org/obl/docs/UNION_CITIZENSHIP_ACT-1948.htm))에서 열람할 수 있다.
- 2)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로부터 불법으로 이주하는 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항상 소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로힝자족에게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을 배부하였다.
- 3) 1977년 11월 16일, 내무 및 종교부 장관령에 따라 불법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 무슬림으로 추정된다(Smith 2002, 18). 로힝자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여카잉주 3개 지역에서 무슬림의 증가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sup>4)</sup> 2005년 “지역명령 2005/1호”<sup>5)</sup>는 마웅도와 부디다웅에 거주하는 결혼 예정 로힝자족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서는 안 되고, 결혼 신고 이전에 여성이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Fortify Rights 2014, 24-27). 무슬림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극우불교도를 자극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 III. 영국 분할통치의 유산?

영국은 효율적인 미얀마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적으로 버마족 중심 거주지역을 버마프로퍼(Burma Proper), 소수종족 거주지역을 변방지역(Frontier Area)로 양분하고, 소수종족을 중용했다. 이른바 분할통치(divide and rule)는 아웅산을 중심으로 한 버마족 중심의 독립운동과 별도로 자치권 또는 독립을 희망하는 소수종족의 영국과의 연대로 국가의 균열로 이어졌다. 로힝자족도 자치권 획득을 위해 영국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1942년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일본과 협력한 버마독립군(BIA)은 로힝자족을 포함한 소수종족과 대립각을 세웠고, 소수종족은 2차 대전 참전을 통해 독립(자치)의지를 재확인했다. 1942년에는 반무슬림 폭동이 발생하여 10만 여명의 무슬림이 사망했고, 8000명이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으로 피난을 갔으며, 307개의 로힝자 마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한 1947년 아웅산(Aung San) 장군을 암살한 집단이 버마적기공산당(Communist Part of Burma: CPB, 1989년 공식적으로 해체)이 대다수였고, 이들 중 대다수는 여카잉 사람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무차별적 공세를 받았다(Christie 1996, 164-165).

로힝자족은 분리 독립보다 자치주 건설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최초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의해 제기되었다 1947년 8월 20일, 두보차웅선언(Dubbo Chaung Declaration)에 따라 무자히드(Mujaheed)당이 자파 카왈(Jafar Kawal, 본명은 자파 후세인)에 의해 창당되었다. 이 당은 여카잉주내 무슬림 자치지역을 건설하고자 하며, 로힝자족 원로들이 지하드평의회(지하드)의 자문을 맡았다. 그러나 네윈 정권이 수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은 와해되었다<sup>6)</sup>.

4) 2012년 종교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여카잉주 주도인 싯트웨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였다. 실제 무슬림의 높은 출생률, 방글라데시 국경지역에서의 불법 이주민 증가, 여카잉족 불교도들의 해외 취업 등으로 여카잉주의 무슬림은 증가했다(ICG 2014, p.14). 이 지역 인구의 증감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며 2014년 인구조사에서도 이 지역 무슬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5) 1988-2011년까지 군사정부는 최상위에 군사평의회를 중심으로 각 주별로 지역군사평의회를 두었고, 다시 각 지역 말단에 이르기까지 군사평의회를 관할했다.

6) <http://rohingya.com/2006/?p=3>

최초의 조직화된 무장단체는 로힝자 독립군(Rohingya Independent Force: RIF)으로 1964년 4월 26일 B.A 자파라고 알려진 자파 하비브(Jafar Habib)와 술탄 아메드(Sultan Ahmed)에 의해 마웅도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도 로힝자족의 자치주를 건설한다는 목적이 있었으나 조직력의 부재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69년 로힝자독립군(Rohingya Independent Army: AIR)으로 개칭한 RIF는 1973년 9월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 싹달라(Sack Dala)에서 로힝자 애국전선(Rohingya Patriotic Front: RPF)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인도로부터 동파키스탄이 독립함으로써 인해서 이들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1974년에 이르러서는 누를 이슬람(Nurul Islam)이 의장, 샤비르 후세인(Shabbir Hussain)이 부의장겸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어 로힝자족의 자치주 실현계획을 구체화 하였다.

1978년부터 RPF는 극심한 내부 균열 현상을 보이면서 급속히 쇠약해져 갔다. 일부는 국제사회 지지자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기득권 확보를 위해 같은 로힝자족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치주 획득을 위한 로힝자족의 노력은 파벌 싸움으로 전개되어 단체들을 지지하는 로힝자족에게도 신뢰감을 쌓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1995년 7월 10일 로힝자결속기구(Rohingya Solidarity Organization: RSO)와 여카잉로힝자이슬람전선(Arakan Rohingya Islamic Front: ARIF)은 동맹연합선언(Joint Declaration of Alliance)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정치·군사·사회문화·교육 등 로힝자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와 함께 두 기구는 로힝자민족연합(Rohingya National Alliance: RNA)의 산하 기구로 예속되었다. 전자는 1982년 모함마드 유누스(Mohammed Yunus)가 조직한 다소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 군사조직이고, 후자는 1987년 RSO에서 이탈하여 누를 이슬람의 주도하에 결성된 무장 단체이다.

그러나 이 RNA도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 RSO가 모함마드 유누스 파벌과 모함마드 자카리아(Mohammed Zakaria) 파벌로 양분되었다. 파벌 다툼이 3년여 지속되는 동안 일부 로힝자족 원로들과 국제사회 지원자들이 해당 세 기구 간의 화해를 중재하였다. 그 결과 1998년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세 기구는 다시 여카잉로힝자민족기구(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zation: ARNO)로 재탄생했다. 누를 이슬람을 의장으로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98년 11월

28일 로힝자 기구 합병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로힝자족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자결권을 인정받고 최후에는 독립을 쟁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ARNO도 두 RSO와 ARIF 출신 인사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려는 파벌 싸움이 전개되었고, 누를 이슬람 의장의 다소 온건한 성향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쏟아졌다. 현재까지 무장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친(Chin)족과 로힝자족으로 구성된 로힝자민족연합전선(National United Front of Arakan: NUFA), 여카잉 군대(Arakan Army) 등이 있다. 두 기구 모두 불교도 여카잉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군 수도 20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 무장단체에 해당된다 (<http://www.fas.org/irp/world/para/arakan.htm>).

2016년 10월, 로힝자족에 의한 국경초소 습격사건의 배후로 미얀마 대통령실은 로힝자결속기구(RSO)와 연관된 아카 물 무자히딘(Aqa Mul Mujahidin)의 소행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이슬람 무장테러단체와의 연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주동 및 가담자 색출을 위해 추가의 군사작전을 펼쳤다. 이로 인해 ‘인종청소’라는 외부의 평가가 나돌기 시작했다.

#### IV. 군부통치의 유산?

1962년 군사정부가 개시된 이래 미얀마는 소수종족에 대한 물리적 공세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연방’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소위 ‘미얀마화’(Myanmarfication)는 버마족 중심의 국가로 재건하려는 것이다. 특히 1988년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화의 강도는 한 단계 높아져서 왕조 시대의 국가구조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군사작전과 함께 정부는 정전협상을 벌였고,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이 그러했듯이 미얀마 정부는 소수종족에 대한 분할통치를 통해 소수종족이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구도를 원한다.

군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국민의 조건과 범위는 현재까지 유효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여기에 군부통치로 인해 객관적인 정보는 통제되고, 날조되어 보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로힝자족을 제외하고 이들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미얀마 국민은 거의 없다. 식민시기 이 지역으로 이주한 뒤 로힝자족은 사회의 하위 계층을 형성했지만 마약, 도박 중독자들로 넘쳐나 여카잉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간주된다(Ardeth Maung Thawngmung 2014, 332).

로힝자족에 대한 편견은 2011년 자유화 이후 등장한 극우단체들에 의해 더욱 왜곡

되고, 로힝자족은 미얀마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할 집단으로 인식된다. 마바따(MaBaTha)의 주동자인 위라뚜(Ashin Wirathu)를 포함한 극우 승려들은 로힝자족과 테러단체와의 연대 의혹을 제기하며 불교국가인 미얀마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민간정부에게 실망스러운 점은 이전 비민주정부가 가졌던 로힝자족에 대한 정책과 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띠우(Tin Oo) 원로 당원은 일반적인 여론과 궤를 같이 하고, 아웅산수찌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변명한다. 또한 제2의 뽕룽회담이라고 명명된 평화협상에서도 로힝자 문제는 배제되었고, 포함 가능성도 희박하다. 로힝자족을 영구적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V.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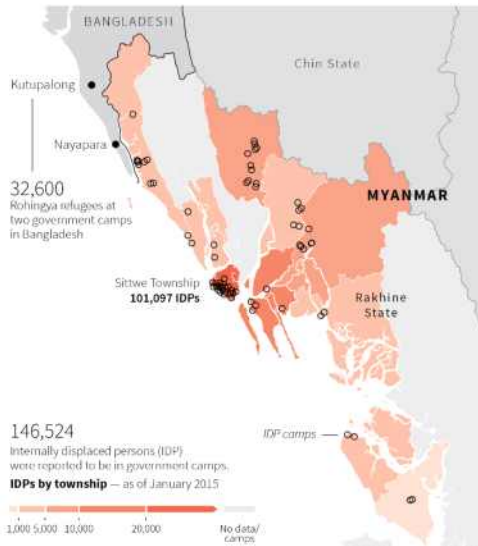
<로힝자족 차별과 관련한 배경>

1. 로힝자와 관련한 상반된 역사 인식
2. 국민국가의 반역자로서 로힝자
3. 정보가 통제되거나 획일화된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한 후유증

<개선>

1. 국제적 연대?: 미얀마 정부와 국민의 저항?
2. 미얀마 정부의 자발적 변화: 극우단체의 소멸, 무슬림에 대한 인식 정립, 무분별한 월경문제 해결 등 ☆

## <로힝자족 난민 현황>(2015)



## 참고문헌

- Ardeth Maung Thawngmung. 2014. "Contending Approaches to Communal Violence in Rakhine State." Mikael Gravers and Flemming Ytzen. eds. *Burma/ Myanmar: Where Now?* Copenhagen: NIAS Press.
- Christie, Clive J. 1996, *A Modern of Southeast Asia: Decolonization, Nationalism and Separatism*, Singapore: ISEAS.
- Fink, Christina. 2009[2nd ed.]. *Living Silence: Surviving Under Military Rule*. Chiang Mai: Silkworm Books; London and New York: Zed Books.
- Fortify Rights. 2014. *Ending Abusive State Policies against Rohingya Muslims in Myanmar*, Fortify Rights,  
<[http://www.fortifyrights.org/downloads/Policies\\_of\\_Persecution\\_Feb\\_25\\_Fortify\\_Rights.pdf](http://www.fortifyrights.org/downloads/Policies_of_Persecution_Feb_25_Fortify_Rights.pdf)>
- Hall, D.G.E. 1960[3rd ed.]. *Burma*.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Press.
-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4. *Myanmar: The Politics of Rakhine State*. Asia Report No.261, Yangon/Brussel: ICG.
- Smith Martin. 2002. *Burma(Myanmar): The Time for Change*.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http://www.rsdm.org/rohingya.htm>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rsd/rsddocview.html?tbl=RSDLEGAL&id=3ae6b4f71b&count=0>

[http://www.ibiblio.org/obl/docs/UNION\\_CITIZENSHIP\\_ACT-1948.htm](http://www.ibiblio.org/obl/docs/UNION_CITIZENSHIP_ACT-1948.htm)

<http://rohingya.com/2006/?p=3>

<http://www.fas.org/irp/world/para/arakan.htm>

## 로힝야 인권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1. UN에서의 로힝야 인권

#### 1)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1992년 3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결의안 58호로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을 설립함.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음. 201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인권이사회 결의안 25/26에 의해 2015년 총선 준비과정에서 선거준비과정에 대한 보고 및 개선까지 권한이 확대되었고, 2016년 3월 24일에 채택된 인권이사회결의안 31/24에 의해 미얀마 정부에 인권 관련하여 진전되고 우선되어야 할 영역들에 대한 기준(benchmark)을 선별(identify)하는 것까지 권한이 확대되었다.

표 1) 역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이름	국가	활동년도
Mr.Yozo YOKOTA	일본	1992-1996
Mr. Rajsoomer LALLAH	모리셔스	1996-2000 (200년 2월 11일에 사임)
Mr. Paulo Sergio PINHEIRO	브라질	2000년 12월-2008년 4월
Mr. Tomás OJEA QUINTANA	아르헨티나	2008-20014
이양희 교수	한국	2014-현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설립 결의문<sup>7)</sup>에 따르면, 특별보고관 성립 배경에는 “8만명에 이르는 미얀마 무슬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가 포함되어 있음.

7) E/CN.4/RES/1992/58

※ 1990년 총선 결과, 아라칸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야당을 지지하자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함. 그 결과 많은 로힝야들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초창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에 대해 호의적이었음. 그러나 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1992년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원요청하고 UNHCR의 난민촌 접근을 허용<sup>8)</sup>. 1992년 3월 24일에 당시 부르토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비극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4월 초에, 안 알리슨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을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파견하여 4월 28일에 로힝야 난민 귀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 그러나 귀환자의 자격여부를 두고 양 정부의 입방이 갈리고, 버마정부가 UNHCR의 감시를 거부하자 협상은 중단됨. 1993년 11월에 들어서야 유엔난민최고대표가 개입하여 유엔의 감시 속에 “자발적”으로 귀환을 원하는 로힝야 난민의 미얀마 귀환이 이뤄졌음<sup>9)</sup>.

### 1) 특별보고관 방문 보고서에 나타난 로힝야 문제

- 2001년 10월 방문 보고서: 특별보고관의 첫 미얀마 공식방문. 라카인 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강제이주 및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지적. 라카인 주 난민 숫자를 10만 명으로 추정
- 2002년 10월 방문 보고서: 종교 자유 관련하여 양곤과 거리가 멀수록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있으며, 이는 라카인 주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역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
- 2003년 3월 방문 보고서: 로힝야 관련 활동이나 언급 없음. 단, 주로 산, 카렌과 같은 태국 인접지역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어 미얀마 군부의 각종 인권침해 발표
- 2003년 11월 3일-8일 방문 보고서: 2003년 5월부터 시작되어 10월부터는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 방화와 살인이 동반된 이 폭력에 의심스러운(bogus) 승려들이 관여되어 있음도 지적.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문제도 지적하면서 무슬림들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면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예시
- 2005년 11월 5일-20일 방문 보고서: 라카인지역의 로힝야가 무슬림 소수종족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고 1982년 만들어진 시민법에서 로힝야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수민족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이로 인해 임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로힝야들은 여행시 허가가 필요하며, 결혼증명이나 출생신고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
- 2006년 2월 17일-24일 주변국 방문 보고서: 미얀마 방문이 거부되면서 인도, 말

8) 1978년 나가밍 프로그램으로 몰려든 20만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UNHCR의 감독하에 있었다. 그러나 난민캠프에 외부의 접근은 통제되었다. 식량공급을 중단시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가혹한 귀환 정책을 UNHCR은 막는데 실패하였다. 1978년 12월에 이르러 만명이상의(이중 7000명이 아동)난민이 사망하자 결국 로힝야난민은 버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9) Thomas K. Ragland, "Burma's Rohingyas in Crisis: Protection of "Humanitarian"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Boston College Third World Law Journal』, Vol 14 Issue 2, pp. 310-314.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방문. 라카인주의 무슬림들이 1982년 시민법개정으로 차별받고 있고 많은 수가 방글라데시로 떠나고 있음을 지적. 이들은 강제노동과 자의적 과세의 피해자이며 또한 급격한 쌀값 폭등으로 피해 받고 있음. 2006년 1월이후에 정부의 강제적인 견과류 플랜테이션 정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많은 모스크가 폐쇄되고 있음을 지적. 그리고 국제인도주의 조직들과 현지 스태프들이 미얀마 군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칭찬.

- 2007년 11월 11일-15일 미얀마방문 보고서: 2007년 샤프란 항쟁에 초점맞춤, 관련 언급 없음
- 2008년 8월 3일-13일 미얀마(3일-7일) 및 태국(7일-13일)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여전히 라카인주의 무슬림들의 차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종교활동의 제한, 강제 이주 및 토지수용과 이동 제한과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 2008년 11월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 법으로 인해 라카인 주 무슬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음을 상기. 이는 결혼과 출산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 문맹률이 80 퍼센트에 달하고 1994년 이후로 정부가 출생증명을 발급하지 않아 수천명의 아동들이 미등록 상태임. 여성들은 학교 교사나 간호사가 시민이 아니란 이유로 될 수 없으며 심각한 성폭력이 계속 발생. UNHCR이 1992년에 방글라데시로 밀려드는 난민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UNHCR과 다른 인도주의 조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2009년 2월 14-19일 방문보고서: 2008년 제출보고서와 관련 부분 동일. 2008년 보고서가 당초 기한보다 늦게 제출되어 2009년 미얀마 방문중에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서 동일한 내용이 재 기술됨
- 2010년 2월 15일-19일 방문보고서: 약 28000명의 라카인주 무슬림들이 방글라데시의 2개의 난민캠프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1년이래도 10만에서 20만명이 체류자격없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방글라데시 정부 추정). 아울러 약 4만명이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음. 2009년 2월 14-19일에 특별보고관이 라카인주 북부를 방문. 특별보고관은 로힝야로 알려진 무슬림커뮤니티가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차별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차별은 이들을 이주자 프레임에 놓고 기본적인 인권 부정당하고 있는 것임. 이는 이동의 자유, 결혼에 대한 허가 및 강제노동 포함,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 및 이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고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 국제법은 종족과 종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1994년 이후 미얀마 당국은 많은 무슬림 아동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이 교육과 의료,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음. 다른 미얀마 사람들과는 달리 무슬림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함. 이 절차는 약 40불의 비용이 필요

한대, 이는 지불하기 어려운 높은 금액임. 심지어 신고해도 몇 년씩 걸림. 이 신고절차를 위반하면 체포되고 최대 5년까지 형을 살아야 함. 부띠당(Buthidaung)에 있는 감옥의 죄수들은 대부분 무슬림인데 이들의 제목은 이민 혹은 결혼 규정 위반임. 그러나 2009년의 대법원은 2건의 결혼 규정 유죄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음. 특별보고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결혼과 관련된 모든 죄수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이 지역 무슬림들이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자의적 과세와 2008년 11월 이후에 군대가 라카인주에 더 주둔함에 따라 급격히 강제노동이 증가한것에 주목. 2009년 3월에 국경을 따라 철조망이 쳐지면서 마찬가지로 강제노동 증가. 이러한 차별 정책의 영향으로 공동체는 분해되고 있음. 2009년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위험한 탈출을 시도하였으며 몇 명은 바다위에 여전히 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상륙한 국가의 구금시설에 있음. 이렇게 대규모 탈출한 사람들은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라카인 주에서 단지 13퍼센트의 가구만 필요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26퍼센트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임. 오직 30퍼센트의 인구만이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인구의 1/3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음. 각종 질병에 노출 되어 있으며 산모사망률은 다른 미얀마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 43만 명이 거주하는 마웅도 지역에 단지 의사는 3명뿐이고 부띠당 지역 28만 인구에 2명만이 의사임.

- 2010년 8월 3일-10일 보고서: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보고서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고질적인 차별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의 직전 리포트가 다루고 있음 로힝야에 대한 차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최근 국경지대를 따라 군대에 의한 특히 NaSaka<sup>10)</sup>라 불리는 국경수비대에 의한 강제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점임. 차별은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이는 로힝야들이 역사적으로 받고 있는 시민권 획득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임. 토지수용법과 강제 이주 및 수용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집단적인 차별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심각한 차별행위임.

## 2) 로힝야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 1992년 12월 28일 47차 총회 A/RES/47/144, 265000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한 미얀마 난민에 대한 깊은 우려 언급
- 1994년 1월 31일 48차 총회A/RES/48/150, 미얀마 정부의 방글라데시 난민 귀환에 관한 MOU체결 환영 및 실행 요청
- 1995년 3월 9일 49차 총회 A/RES/49/197, 미얀마 정부가 UNHCR에 협력하여

10) 2013년 7월에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해체를 선언함. 그러나 경찰로 전환하여 여전히 탄압에 앞장서고 있음.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 귀환에 노력하고 있는 점 환영

- 1996년 3월 11일 50차 총회 A/RES/50/194, 미얀마 정부와 UNHCR의 협력 환영 및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의 자발적 귀환프로그램을 잘 이행해줄 것을 요청
- 1997년 3월 6일 51차 총회 A/RES/51/117, 난민들이 귀환했을 때 미얀마 사회에 잘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방글라데시 및 UNHCR에 대한 언급 없음)
- 1998년 3월 3일 52차 총회 A/RES/52/137, 51차 총회 결의문과 동일
- 1999년 2월 25일 53차 총회 A/RES/53/162, 미얀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이웃국가로의 난민 발생이 해당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우려(Concern)
- 2000년 2월 29일 54차 총회 A/RES/54/186.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와 함께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촉구(Urge)함
- 2001년 3월 1일 55차 총회 A/RES/55/112,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탄(deplore)하면서 난민의 발생으로 이웃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귀환 난민들이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귀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
- 2002년 2월 28일 56차 총회 A/RES/56/231. 난민의 발생으로 이웃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않고 귀환 난민들이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
- 2004년 3월 11일 58차 총회 A/RES/58/247 미얀마 정부가 국내 난민 발생 및 해외난민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제법상의 미얀마의 의무를 상기할 것 명시
- 2005년 3월 17일 59차 총회 A/RES/59/263. 조직적인 강제 이주정책 및 난민 발생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난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및 해외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을 것을 요청. 또한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조직들이 국내 이주민 및 귀환 난민들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 2006년 3월 23일 60차 총회 A/RES/60/233. 국내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과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기구들이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존엄을 갖추고 귀환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
- 2008년 2월 28일 62차 총회 A/RES/62/222 UN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미얀마 전역에서 특히, 분쟁 지역 및 국경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
- 2009년 1월 23일 63차 총회 A/RES/63/245. 군인들이 특정 소수민족을 타겟으

로 강간과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중단시킬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청.

- 2010년 3월 26일 64차 총회 A/RES/64/238 라카인 주 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차별, 인권유린, 폭력, 강제이주, 경제적 박탈 등의 문제가 로힝야 소수민족을 비롯해 수많은 소수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정부가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과 로힝야 소수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함.
- 2011년 3월 21일 65차 총회 A/RES/65/241 64차 총회와 동일한 문장으로 우려 표명.
- 2012년 4월 3일 66차 총회 A/RES/66/230 64차, 65차 총회와 동일한 문장으로 우려 표명 (계속 군사작전 과정에서 특정 소수종족들-particular ethnic groups-에 대한 폭력과 강간 지적 및 난민 발생 우려 함께 표명)
- 2013년 4월 8일 67차 총회 A/RES/67/233. 미얀마 정부가 점증되고 있는 인권 유린, 폭력, 강제이주, 경제적 박탈 등의 문제가 다양한 소수 종족들과 특히 라카인 주의 로힝야 족에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가 모든 인권 특히, 국적을 가질 권리에 대해 보호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2014년 2월 24일 68차 총회 A/RES/68/242. 반복해서 라카인주의 로힝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집단적인 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포함한 상황과 미얀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슬림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심각하게 우려. 미얀마 정부에 계속되는 폭력에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것과 라카인 주 전역에 걸쳐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살던 공동체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을 보장하며 완전한 시민권을 로힝야에게도 평등하게 줄 것과 토지 소유권 및 재산 반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 그리고 정부가 일부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가 공동체간의 대화 및 로힝야 문제의 근원에 대해 다뤄줄 인권침해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 실시 및 화해를 위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

## 2. 2012년 이후

- 2012년 6월에 로힝야 남성들이 불교도 여성을 강간 및 살해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힝야에 대한 대규모 폭동이 발생, 군부까지 개입한 이 공격으로 7만명 이상의 로힝야 사람들이 탈출해야하는 상황에 처함. 그 결과 약 14만명의 로힝야 사람들은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수용소에 갇히는 상황. 국제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 인도주의 기관의 접근도 미얀마 정부가 차단함.

## ○ 인구조사 문제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4)의 보고서 「Counting the Costs : Myanmar's Problematic Census」에 따르면, 30년 만에 실시된 미얀마의 인구조사 과정에서 종족갈등에 대한 UN 인구기금(UNFPA) 및 공여국 전문가들의 몰이해·무관심으로 로힝야들이 위기에 처함. 인구조사의 준비과정에서, International Crisis Group을 비롯한 많은 NGO들과 UNFPA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위험 평가(The UNFPA-Commissioned Political Risk Assessment) 전문가들은 답변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종족을 규명하도록 하는 질문을 빼거나 인구조사 자체를 지연시키라는 강력한 권고를 여러 차례 제기함. 이는 로힝야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UNFPA와 공여국들은 사실상 인구조사에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원에만 방점을 둔 형식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족갈등 문제를 간과함.

결과적으로 로힝야 사람들이 스스로의 종족성을 정의할 수 있는 UNFPA의 인구조사는 로힝야족을 향한 극단적인 버마 민족주의 세력의 폭력시위를 촉발했고, 그 화살은 로힝야족을 지원하던 인도주의 기관들로 향했다. 2014년 2월 27일 지난 20년간 라카인 주에서 활동한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이하 MSF)는 '로힝야족에 편향되었다'는 이유로 미얀마 정부에 의해 철수명령을 받음. 이미 MSF 직원들이 지속적인 살인협박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MSF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여 이로 인해 로힝야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첫 2주간 약 150명이 사망하였음. 2014년 3월 16일에는 설문에 반발하는 극단적 버마 민족주의자들이 대대적 폭동을 일으켜, 이틀에 걸쳐 인도주의 국제기관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300명의 인도주의 기관의 직원들이 긴급 피신하고 사무소·장비·이동수단이 파괴되면서 고립된 난민캠프의 로힝야족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멈추게 되었음 미얀마 보건부가 휴대전화 진료 서비스마저 중단함에 따라, 기존의 인도주의 지원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로힝야족의 죽음이 급증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었음.

뒤늦게 UNFPA와 공여국들은 라카인주의 인구조사를 연기하고 전국적으로 종족에 대한 질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불과 3일 후 군사인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인구조사를 지속하였음. 미얀마 정부는 버마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인구조사 설문을 하기 전 소속집단을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통계집계에서 빼버리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림<sup>11)</sup>.

- 2012년 이후, 라카인 지역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됨. 유엔 인권 대사,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이 라카인 주를 방문할 때마다 항의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남. 적십자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활동도 치안불안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 로힝야 수용지역은 게토화 되고 외부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됨.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들은 살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 필사적으로 탈출에 나섰지만 주변국들의 냉대로 2015년에 보트피플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떠오름. 결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나서서 일부 수용했으나 여전히 많은 로힝야 난민들이 바다 위를 떠돌거나 국제인신매매조직에 의해 팔려나가는 상황 지속.
- OIC는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대표단을 미얀마 정부에 파견하여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년 1월에도 대표단 파견을 결정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6년 11월 15일에는 다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방콕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짐. 다카에서는 5000명 규모였고, 다른 도시에서는 수백명의 로힝야들과 무슬림들이 항의 시위를 개최함. 2016년 12월 15일에는 런던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300명의 로힝야들이 항의 시위 개최.
- 로힝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단체 중에서는 BURMA PARTNERSHIP<sup>12)</sup>이 꾸준히 인권침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로힝야 문제에 관해서는 ARAKAN PROJECT<sup>13)</sup>란 단체가 꾸준히 좋은 자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

11) [칼럼] 미얀마를 탈출하는 로힝야족(Rohingya)의 절망 -고통받는 소수민족의 인권은 누가 보호하는가?- | 작성자 GP3 KOREA, <http://blog.naver.com/gp3project/220779129050>

12) <http://www.burmapartnership.org/>

13) <https://www.insightonconflict.org/conflicts/myanmar/peacebuilding-organisations/arakan-project>